

<내신 3점대, 고3 6모 백분위 89가 정시 현역으로 연대 경제에 온 과정>

0. 서문

한국에서 대학이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는 정도는 과거에 비해선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갈수록 줄고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대학 타이틀보다는 다른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려하며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물론 '좋지 않은 대학'을 졸업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을 합격했을 때 해당 대학을 재학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분명 존재하고 '좋지 않은 대학'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나 얻을 수 있는 경험들에 대한 차이는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있을 친구들은 적어도 공부를 통해 현재보다 본인의 상태를 낮게 만들어 목표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지만, 수능은 특히 사람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고를 이어나가는 방식, 공부방법을 개발해가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 방법 A가 어떤 사람은 수능에 1년의 시간을 더 투자하도록 이끌지만 어떤 사람은 서울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우며, 방법 B가 어떤 사람은 의예과에 진학할 수 있게 돕지만 어떤 사람은 수능에 6개월의 시간을 더 투자하도록 이끄는 것과 같은 상황이 당장 주변만 바라봐도 짚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아래에 적어내릴 말들이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여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도록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의 도움마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싶어서, 두 번째 문단을 적어봤다. 내가 도움을 주는 방식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든 그렇지 않든, 스스로의 상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방법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2022학년도 수능을 언어와 매체, 미적분, 물리학1, 생명과학2의 조합으로 응시하여 수학에서는 원점수 100점의 이득을 취했지만 물리학1과 생명과학2에서 각각 백분위 80 언저리의 손해를 얻어 과학탐구영역에 비해 국어와 수학의 점수 반영 비율이 높은 문과로 교차지원을 했다. 2022학년도 수능의 특성상 다른 해에 비해 수학이 쉽게 출제되어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84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88점 등 비교적 낮은 성적대에서 수능 100점으로의 도약을 이뤄낸 게 큰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험 현장에서의 사고과정 및 고3 생활을 하며 느낀 변화에 기반해 1년동안 유의미한 성장을 이룬 케이스라고 판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기로 결정했다.

1. 하루 14시간 공부법

0020~0620: 잠

0620~0720: 샤워, 아침, 준비

0720~1220: 공부/일

1220~1320: 운동, 점심

1320~1820: 공부/일

1820~1920: 운동, 저녁

1920~2320: 공부/일

2320~0000: 운동, 샤워

0000~0020: 하루 마무리

위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내가 무언가 하고자하는 목표가 있을 때 하루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다. 절대적인 시각보다는 하루 24시간 중 6시간을 잠에 투자하고 남은 18시간을, 4시간을 공부 이외의 일상생활에 소비하고 남은 14시간 모두 공부에 투자하는 데 의미가 있는 방식이다. 하루에 10시간도 공부에 투자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 목표 대학에 합격하는가 하면 하루에 15시간도 더 공부에 투자한 사람이 목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사례도 분명 봤다. 하지만 ‘본인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나는 하루 14시간 공부법을 대답한다.

공부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 고민을 시작할 때 많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공부법을 알아와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실패한다면 다른 방식을 찾고 성공한다면 더 나아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많이 보왔다. 하지만 어느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는 지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시간 확보이다.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이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들에 엄격해야하고 불필요한 시간은 줄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하며 어느 정도의 포기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확보된 시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부 또한 이뤄낼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공부법을 갖고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시간 확보는 중요하다.

2. EBS 연계교재 사용법

EBS 연계교재의 경우 갈수록 연계 비율이 줄어들며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는 등 공부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얼마나 연계가 되느냐?’에서 ‘연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초점을 옮겨본다면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데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정리하거나 사설 인강 강사의 분석 교재를 활용해 강의를 들으며 정리하거나 노트 정리를 하거나 등등 사람마다 같은 자료를 다르게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어떤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자료를 활용하고 효과를 얻은 방식을 그대로 남겨보겠다.

<국어>

국어의 경우 수능특강에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으로 4권, 수능 완성에 공통(문학 and 독서)+선택(언어와 매체 or 화법과 작문)으로 2권, 총 6권의 연계 교재가 존재한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독서,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수능완성 문학+독서+언어와 매체 총 4권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물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입장에서 화법과 작문 연계 교재 또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은 된다, 선택과목 체제로 수능이 전환되기 이전을 바라보면 원래는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네 영역 모두 공통 출제범위였고 출제범위가 선택으로 바뀌어도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과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수능을 준비하다보면 느끼겠지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지와 기타 교육청이나 사설 기관 등에서 출제한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이 서로 다르며 같은 종류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가원 기출 문제이자 우리가 접할 수능과 EBS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들 사이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굳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로 연계되는 부분을 확인해봤을 때 ‘문제 제작 방식’을 찾기보다는 ‘소재’를 찾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에 집중하지 않는 대신 다음의 것들을 확인해두는 게 의미가 있다.

문학: 작품의 특징(특정 소재, 제재, 주제나 표현 방식, 전개 방식 등), 작가의 특징, <보기>와 같이 교재에 제시된 함께 바라봐볼 부분 등

독서: 글의 제재, 주제 등(관련된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자료 조사하여 정리해두는 것도 글을 읽으며 뒷내용을 예측하는 태도나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의 경우 문학과 독서에 비해선 문제 외의 부분에서 확인해둘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교재에 적혀있는 개념들에 본인이 익숙한지 정도를 가볍게 파악하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모두 문제 수가 그리 많지 않으니 시간 제한 없이 집중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며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 표현들에 집중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기면 충분히 의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과 독서의 경우 문제를 풀지 않고 위에 언급된 것들을 챙기는 데에 회의를 품을 수도 있는데,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들과 달리 정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매년 존재하며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사고 과정 자체에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어렵다’ 혹은 ‘문제가 더럽다’라고 느끼는 부분 또한 평가원이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를 때가 많아서 접하는 text량을 늘리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접해보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자칫하면 평가원과 거리가 먼 출제 방식과 사고 과정에 익숙해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공부한 것들을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에 접근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재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순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람마다 특정 공부법이 도움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점으로 대답하고 넘어가겠다.

<수학>

수학의 경우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수능특강 5권과 공통(수학1 and 수학2), 선택(확률과 통계 or 미적분 or 기하)으로 구성된 수능완성 3권으로 총 8권이 존재한다. 이 중 미적분을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수능특강 수학1, 수능특강 수학2, 수능특강 미적분, 수능완성 수학1+수학2+미적분의 총 4권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수학의 경우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8권 모두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본인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와 수능특강 기하의 경우 일부 4점짜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공부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본인 선택과목에 따른 4권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사실 수학 특성상 출제 소재가 연계된다 하더라도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특정 소재가 연계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발문 중에 사용된 표현이나 $\sim$ 문제 유형의 경우 선지 표현 방식 등이 조금씩 겹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다. 그러나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과정을 문제 당 10개 정도씩으로 쪼개봤을 때 30문제에 대한 300개의 단계 중 1개가 겹친다고 해도 그 1개의 단계를 겪어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의 사고 과정 전개의 속도 차이는 꽤 크다.

개념의 경우 EBS 연계교재보다 자세하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서술해둔 자료들이 많고, 문제의 경우 EBS 연계교재보다 의미있고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들을 잘 살려둔 자료들이 많으며 해설의 경우 사설 인강 강사의 해설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학의 경우 앞서 언급한 사고과정의 단계에 있어 각 문제를 해결하며 ‘왜 이런 단계를 거쳤는가?’, ‘이 단계가 꼭 필요한가?’, ‘이 문제에서 작용한 중요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이 사고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 다른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사고과정을 살려 문제를 제작해본다면, 어떤 소재와 엮어 출제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평가원 문제로 출제한다면 어떤 평을 받겠는가?’와 같이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져보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원 출제 방식과의 차이와 사고과정 사이의 필연성 부족 등으로 수학은 EBS 연계교재를 풀지 않아도 된다가나 풀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 봐왔다. 하지만 발문이든 선지가든 사고과정이든 결과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은 존재하며, 꼭 수능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EBS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해보는 경험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논술을 대비하는 등의 이유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평가원이거나 다른 일반적인 기관에서 출제하는 시험지에서 볼 수 있는 문제와 다르게 각 영역을 엮어 문제를 만들어보는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적분의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나 삼각함수의 극한도형 문제와 같은 곳에서 등장하는 원을 기하에서 등장하는 타원으로 바꾸거나 삼차함수 대신 쌍곡선을 활용하거나 등등, 혹은 주로 확률과 통계에 킬러로 등장하는 경우의 수 문제에 평면벡터를 도입하여 n 가지 벡터를 결합해 조합할 수 있는 특정 벡터의 경우의 수를 세거나 정규분포곡선의 함수를 특정 닫힌 구간을 잡아 정적분 하는 등의 문제를 제작해 풀이를 만들어보는 과정은 시험에 출제될 문제들을 접하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은 될 수 없을지라도 수학적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영역 간 연계되어 출제된 논술 문제들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이 실시된 해에 출제된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기출문제의 경우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 문제를 기하의 쌍곡선의 방정식을 활용하거나 다른 기출문제의 경우 미적분에서 평소에 접할 수 있는 함수와는 달리 훨씬 복잡한 함수의 특정 닫힌 구간에서 x 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는 등, 혹은 대칭축이 x 축 혹은 y 축과 평행한 기하의 포물선과 달리 대칭축이 $y=ax+b$ 꼴의 직선인 포물선 등 논술에 출제될 수 있지만 평소에 접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공부방법이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영어>

영어는 영어, 영어독해연습, 영어듣기의 수능특강 3권, 영어의 수능완성 1권으로 총 4권이 존재하며 원칙상 4권 모두 공부하는 것이 옳지만 수능특강 영어듣기를 제외한 3권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과거 EBS 연계교재의 지문이 그대로 수능 31번 빈칸 문제나 수능 37번 순서 문제 등에 출제되어 공부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 사이의 시간 확보량이 크게 차이가 났을 때와 달리, 지문이 그대로 연계되지 않는 지금 과거보다 EBS 연계교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덜 중요해졌다는 말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급된 소재가 출제되거나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글이 등장하는 등 여전히 연계교재를 공부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 영어 모두 비슷한 구조로 자료가 제공되므로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국어나 수학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지문을 읽어보며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에 표시하고, 해당 단어들의 뜻을 기억한다. 이때 단순히 단어와 뜻의 일대일대응으로 기억하기보다는 해당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우리 학교의 경우 능률보카 어원편, 능률 특급, EBS 연계교재 등에 등장하는 단어와 문장을 활용해 매학기마다 영어 수행도 진행하고있기 때문에 수행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EBS 연계교재를 활용한 단어 수행의 경우 3학년 때 실시하기 때문에 챙기지 않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입시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단어 수행을 챙긴 사람들이 수시로든 정시로든 챙기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케이스가 더 많았다.).
- (2) 문제를 풀진 말고, text와 답지에 해설을 같이 펴두고 주제를 체크한 후 한글로 된 해설본을 먼저 쪽 읽어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이후 text를 읽으며 해석과 내용 정리를 진행한다.
- (3) 주기적으로 지문을 영어 text로 읽어주며 내용을 상기시킨다.

나 같은 경우 위 방법으로 한 지문당 3분의 시간을 하루 30분씩 점심, 석식 시간에 2번 투자하는 방식으로, 4월이 지나기 전에 수능특강 영어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을 마치고 여름 방학 전까지 위 과정을 반복해 지문의 내용들을 상기시키다가 수능완성 영어가 나오고서는 수능완성 영어로 여름 방학 동안 마찬가지로의 공부를 했던 것 같다.

평가원 영어 기출문제를 공부하다보면 알겠지만, 평가원이 상당히 비슷한 주제를 갖고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편적인 것과 보편적이지 않은 것의 대립, 같은 것과 다른 것의 대립, 사회과학적인 것(변화 가능한 것, 상대적인 것)과 자연과학적인 것(잘 변화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 등을 예로 뽑을 수 있으며 대성 더프리미엄 모의고사와 같은 일부 사설 모의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조차 비슷한 주제로 쓰인 글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은 EBS 연계교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매년 비슷한 주제의 글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먼저 보고 text를 읽는 방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익숙하게 해두는 것은 직접 연계가 아님에도 수능을 접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수능 18, 19, 25, 26, 27, 28, 43, 44, 45번 등에 해당하는 종류의 지문들은 굳이 읽어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 힘을 들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독해력을 기른 채로 많은 문제들을 접하다보면 언급한 번호의 문제들은 각각 1분 내에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BS 연계교재로 공부할 때에도 나머지 20, 21, 22, 23, 24,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번 등에 해당하는 종류의 지문들을 내용만 파악해두면 공부하는 데에 충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사회탐구영역>

사회탐구영역의 EBS 연계교재는 사회탐구영역 9가지 과목에 대해 수능특강, 수능완성 총 18권이다. 이중 2가지를 선택하여 총 4권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사회탐구영역의 과목들은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말을 남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회탐구영역의 특성상 과학탐구영역의 과목들보다 내용들을 '기억'하는 데에 더 비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에 제시된 개념과 추가 내용들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자주 복습해두고, 도표 문제처럼 까다로운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EBS 연계교재에 제시된 형태와 그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형태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제들을 꼼꼼히 분석해두고 관련 기출문제와 사설 변형 문제들을 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과학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의 EBS 연계교재는 과학탐구영역 8가지 과목에 대해 수능특강, 수능완성 총 16권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가 아닌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중 2가지 과목을 선택함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8권 중 4권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부해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 수업이나 사설 인강, 기타 자료를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내용이 EBS 연계교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모든 내용을 기억해두진 않아도 한 번쯤 정리해두는 것은 필요하다. 실제로 물리학I 과목의 경우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 개념 위주의 1페이지 문제에서 상당한 오답률이 나왔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서 당황함 없이 해결하고 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 모든 내용을 정리해두는 태도는 필요하다(tmi지만 물론 나도 그때 틀리긴 했다.).

교재에 있는 2, 3점짜리 문제를 풀며 익숙하지 않은 자료, 익숙하지 않은 발문 등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기억해두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 물론 거시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들은 사설 강의에서도 정리해 제공하겠지만 사람마다 익숙하지 않아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한 번쯤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교재 변형 문제의 경우 사설 강의에서 제공하는 것을 봐도 본질적인 부분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기보다는 숫자 몇 개와 아는 정보와 모르는 정보의 약간의 변형 정도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수학 영역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문제 해결에 있어 사고과정을 정리해보고 각각의 사고과정들 중 중점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새로 문제를 제작해보는 태도가 공부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EBS 연계교재를 어느정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원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자주 쓰이는 사고과정을 정리하고 관련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태도를 정리한 후 교육청 기출 문제나 사설 문제 등을 통해 적용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탐구영역에 비해 교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 이후엔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앞서 설명할 때 II 과목을 배제하고 I 과목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II 과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점수가 어느정도 확보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과 방식을 잡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낼 의견과 관련 자료와 강사들을 만나며 직접 생각을 정리해나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다(여담으로 서울대에서 II 과목 필수를 2024학년도 수능, 현재 고2부터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II 과목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것 같긴 하다. 그러나 가산점 등을 고려할 때 선택할 학생들은 여전히 선택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I 과목 중 본인과 맞는 게 없다면 굳이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무조건 좋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사는 굳이 EBS 연계교재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

3. 언제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N제는 언제 푸는 게 좋나요?’, ‘평가원 기출은 몇 번 정도 공부해야하나요?’, ‘개념은 인강 한 번 돌리면 될까요?’와 같은 질문들은 고등학교 3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부터 n수 중인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공통된 답변은 ‘정해진 게 없다.’이다. 이러한 질문들에는 말 그대로 정해진 답이 없다. 사람마다 공부한 양이 다르고 공부한 깊이가 다르고 기억에 남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의 상태를 파악해 필요한 공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밖에 없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는 이걸 많이 한다’ 정도로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공부를 해야한다.

나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할 때 1년 동안 내가 하면 좋겠다고 판단한 공부할 것들만을 정리해두고 따로 시점이나 기간을 잡진 않았다. 3월까지의 개념 인강을 마치고 4월에 평가원 기출을 공부한 후 5월부터 N제를 접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나는 7월까지 개념 인강을 마치고 수능 전까지 평가원 기출만을 공부하며 N제를 접하지 않는 등 ‘이건 언제 하면 좋나요?’라는 질문에 제공되는 일반적인 답변과는 조금 거리가 먼 수험생활을 했다. 하지만 내게 지금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공부할 수 있었고 실제로 3월에 개념, 4월에 평가원 기출, 5월부터 N제를 접한 친구들보다 수능 당일 더 높은 성적을 받아낼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개념에 대한 이해를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평가원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분석도 어느정도 되었다면 2월이어도 N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 같고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면 수능이 1달 남은 10월에도 개념과 평가원 기출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N제나 사설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것보다 당연히 우선이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공부는 사람마다 하는 방식과 시간 투자에 대한 계획이 다르고 그에 따라 얻어낼 수 있는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통계적인 답변들만이 존재할뿐인데 이 답변들은 말 그대로 통계적일뿐 스스로 필요한 공부를 찾아 본인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수험생활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답을 제시하기보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하며 과목 별로 어떤 공부들을 계획하고 했는지를 공유하는 것이 조금 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를 남기기로 결정했다. 아래가 그 내용들이다.

[국어]

- EBS 연계교재(수특 문학, 수특 독서, 수특 언매, 수완 언매) 챙길 것 챙기기
- 피렘 생각의 전개 문학, 조정민 만점의 생각 통해 평가원 기출 문제 공부
- 이감 간쓸개, 모의고사 Off 통해 text량 늘리기, 매일 문제푸는 습관

[수학]

- EBS 연계교재(수특 수1, 수특 수2, 수특 미적, 수완 미적) 챙길 것 챙기기
- 마플 통해 평가원, 교육청, 사관 학교, 경찰대 기출 문제 공부
- 이해원 한완수 통해 평가원 기출 문제 공부
- 한성온(일산 5A) 씨밋 N제, 모의고사 등 통해 평가원 기출 요소 복습, 다양한 문제 접하기

[영어]

- EBS 연계교재(수특 영어, 수특 영독, 수완 영어) 챙길 것 챙기기
- 황승훈(명인 학원) 과제, 모의고사 통해 평가원 기출 요소 복습, 다양한 문제 접하기
- 김성수 undisputed 통해 어휘력 기르기
- 기출의 파급효과 영어 워크북 (2022) 통해 평가원 기출 문제 공부

[물리학1]

- EBS 연계교재(수특 물1, 수완 물1) 챙길 것 챙기기
- 방인혁 the fundamental 통해 개념 공부
- 마더텅 물1 통해 평가원 기출 문제 공부

[생명과학2]

- EBS 연계교재(수특 생2, 수완 생2) 챙길 것 챙기기
- 백호 섬개완 통해 개념 공부
- 시대인재 서바이벌, 엣지 (최수준) 등 통해 평가원 기출 요소 복습, 다양한 문제 접하기

[한국사]

- 권용기 컴팩트 통해 개념 공부 (여담인데, 9평 때 한국사가 21점이었나 그랬는데 10월부터 이 강의 듣고 수능 때 41로 1등급 받았던 것 같다.)

2022학년도 수능 이후 평가원 기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개인적으로 여전히 평가원 기출 문제를 단계별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수능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학의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이 수강하는 현우진 선생님의 뉴런, 수분감, 드릴, 킬링캠프와 같은 자료의 도움 없이 원점수 100점을 만들어내며 여전히 평가원 기출문제 속에 있는 요소들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수능 당일 수학 문제를 풀며 느꼈고 시험 종료 15분 전에 100점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에 대한 깊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자료를 통해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나면 풀어야 할 N제와 사설 모의고사들이 넘쳐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모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기반해 평가원 기출문제를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아야하며 분석을 통해 얻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사설 문제들을 바라보며 얻을 수 있는 점들을 얻어가야 본인에게 의미있는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또한 대성 더프리미엄 모의고사와 같이 전과목 모의고사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순서대로 응시해보는 경험은 어느 정도의 개념과 평가원 기출 문제에 대한 공부가 진행되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당일에 경험할 하루의 순서를 연습하려는 목적으로 3학년 2학기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전과목 모의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입장이다. 실제로 나는 1년 동안 6번의 교육청/평가원 모의고사와 6~7번의 대성 더프리미엄 모의고사를 통해 전과목 모의고사를 이어서 응시하는 경험을 한 것 외에는 따로 전과목 모의고사를 푸는 것을 연습한 경험은 없다. 전과목 모의고사를 이어서 풀어보는 것은 정신적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 연습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면 굳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

4.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다보면 알겠지만 나와 맞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실력 향상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맞는 같은 방법으로 실력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많이 언급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그로부터 파악한 필요한 공부들을 찾아서 남들과는 다를 수도 있는 본인의 공부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것들을 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된 자기암시를 통한 자기확신과 결정한 계획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키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각자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을 얻어가서 의미있는 수험생활을 통해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응원한다.

Cf1. 정시로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던 순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내 내신은 3점대이다. 3점대면 웬만큼 세특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문과든 이과든 수시로 고려대 이상을 합격하기는 고에서 어렵다. 나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나중에 명확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관심있는 학과도, 목표 대학도 없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공부에의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2학년 2학기 2차지필이 끝나고 12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나중에 정말 하고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모의고사 성적도 그리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을 많이 올려도 정시로 한성서를 가면 잘 갈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다가 정주영 저자님의 '하버드 상위 1%의 비밀'과 박성혁 저자님의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2021년 1월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2시간 이상 앉아있기도 힘들었고 집중은 10분 정도 지나면 하기 싫었었다. 1월에 마플 문제집을 통해 수1, 수2 기출문제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안풀리는 문제도 많고 풀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풀리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았다. 그래도 그냥 했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책에서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에는 3주 정도가 걸린다는 말을 봤었는데 그래서 2월이 될 때까지 하기 싫어도 꼭 참고 집중이 안되더라도 집중하려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2월이 되었고 1월 초반에 비해 오래 앉아서 오래 집중할 수 있는 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누가 목표 대학이 어디냐고 물으면 '연세대학교 의예과'라고 대답했다. 의사가 되고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과탐 II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이과가 갈 수 있는 입결 최상위 대학, 학과였기 때문에 저기를 목표로 공부하면 나중에 내가 어디를 가고싶어하든 모두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답하고 다녔다(이때는 물1, 지1을 선택해 공부하고 있었다. 지1을 생2로 바꾼 것은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7월 쯤이었던 것 같다. 만약 이때부터 생2를 공부했다면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로 대답을 했을 것이다. 이유는 같다.).

고3과 N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모의고사를 응시한 후 표준점수 합으로 볼 때 연세대 의예과 합격권까지 약 70점 가까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담을 해주시던 선생님은 처음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좋게 돌려 말씀해주셨지만 나는 당당하게 '이 과목은 이렇게, 저 과목은 저렇게 대비하면 1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며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책에서 봤던 '통계는 통계일 뿐, 예외는 항상 존재한다.'는 맥락의 말을 떠올렸던 것 같다.

3월이 되어 개학을 하고나서는 학교에서 매일 공부만 했던 것 같다. 점심 석식 시간에 밥을 먹고 친구들과 잠시 쉬어도 되지만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서 40분, 30분씩이라도 공부 시간을 확보했고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거나 쉬는 시간이 길어질 때면 10분씩이라도 더 공부시간을 확보해 그날 세운 계획들을 하나씩 해결해갔다. 기계같은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지만 1년 뒤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가질지 상상해보니 비는 시간 없이 공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첫 평가원 모의고사인 6월 모의고사를 응시했고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89 정도가 나왔던 것 같다. N수생이 모두 들어오지 않았고 빠질 고3들이 빠지지 않은 표본임을 고려하면 6월에 백분위 89로는 가고싶은 대학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도 그냥 했다. 나도 내가 원래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통계는 통계일 뿐, 예외는 항상 존재한다.'는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여태 보내왔던 시간들 덕분에 하루종일 공부하려는 태도는 어느덧 습관이 되어 나를 의지가 아닌 관성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7월 말쯤 수능 연습할 겸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응시하러 갔는데 원점수 국어 91, 수학 88, 영어 100의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통계는 통계일 뿐, 예외는 항상 존재한다.'는 말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이때 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이 고3 초반에 비해 점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수능 때는 세 과목 모두 100점에 수렴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던 지구과학1을 버리고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대비하며 나와 맞는다고 느낀 생명과학2로 수능이 약 130일 남은 시점에서 과탐 선택 과목을 바꿨다. 여담이지만 정시파이터들도 3학년 내신을 챙기기를 추천하는데, 운정고 내신을 대비하는 것은 수능 준비와 큰 거리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특히 3학년 1학기 내신의 경우 출제 범위가 EBS 연계교재인 주요 과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학, 고급수학, 심화 영어 정도는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탐 II 과목의 경우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수능 특성상 '사고의 흐름'이나 '답을 도출하는 방식' 등이 과탐 I과목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념 상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문제 풀이와 사고 과정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내신도 같이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내신을 아예 버린 친구들보다 정시파이터지만 내신을 어느정도 챙긴 친구들이 정시로도 대학을 더 잘 갔다.

2학기가 시작되고 공부는 하기 싫었지만 여태 보내온 시간들이 관성으로 작용하여 계속 공부할 수 있던 것 같다. 매일 사설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하나 둘씩 늘었지만 국어, 수학의 경우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설 모의고사를 풀며 실전 감각을 키웠고 영어의 경우는 점심, 석식 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1개씩 공부하고 채점하는 식을 반복했던 것 같다.

9월 모의고사를 본 후 국어 원점수 100점, 수학 원점수 88점, 영어 안정적인 1등급을 받으며 전반적인 마무리를 통해 수능 당일에는 세 과목 합 원점수 300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또한 공부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생2도 3등급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며 남은 2개월이면 원점수 50점은 어려워도 1등급까지는 충분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글의 앞부분을 읽었으면 알 수 있듯이 나는 개념과 평가원 기출 문제는 깊게 공부했는지 몰라도 사설 문제를 접한 경험이 평균적인 고3 친구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다. 그래서 남은 2개월을 애매하게 투자하기보다 평가원 기출 문제 분석해 극한으로 몰아넣어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고 2022년 1월부터 바로 N제를 통한 평가원 기출 요소 복습과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경험 확대를 이룰 수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국어, 수학, 영어는 평가원 문제 분석해 집중했고 물1, 생2는 최대한 새로 접하는 문제를 개념에 기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평가원 기출 문제와 사설 문제 공부보다 개념을 확실히 공부하고 이를 활용한 문제를 직접 제작해보는 경험을 통해 고3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로 공부를 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다. 그렇게 수능을 응시했고

국어 백분위 93, 수학 원점수 100,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물1 3등급, 생2 4등급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1월부터 말하고 다녔던 연세대 의예과라는 목표와는 큰 거리가 있는 점수였지만 2학년 2학기 말의 내 점수와도 큰 거리가 있었다. 이후 과탐에 비해 수학,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다가 연세대 문과를 발견했고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중 경제학과를 택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중앙대학교 창의ICT공과대학에 정시 원서 3장을 넣고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두 학교에 합격함으로 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재학생이 되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시점은 2022년 5월 16일인데 애초에 대학에 대한 욕심이나 관심 분야가 없었던 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라는 내 학교에 만족하며 학교 생활을 즐기는 중이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품었던 생각과 계획들에 비해선 투자 시간 부족으로 인해 낮은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반수 계획도 갖고는 있다. 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얻어내어 의미있는 입시 기간을 보내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다.

+ [재수 계획]

목표: 서울대학교 의예과 23학번 안정합격

국어: 만점 수렴

수학: 만점 수렴

영어: 만점 수렴

한국사: 3등급 이상

물리1: 만점 수렴

생명과학2: 45점 이상

<국어>

-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분석 (2년치)
- 평가원 모의고사 10년치 분석
- leet 10년치 분석
- 언어와 매체 노트정리

<수학>

- 한완수 수1, 수2, 미적 복습
- 작년 평가원 기출 답지 제작
-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분석 (2년치)

<영어>

- 작년 평가원 기출 답지 제작
- undisputed n회독
- 영어 영상 시청 (듣기 대비)
-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분석 (2년치)

<한국사>

- 권용기 컴팩트 복습
- 권용기 퍼펙트 공부
- 작년 평가원 기출 공부

<물1>

- 일반물리 전공서적 pdf 공부
-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분석 (2년치)
- 기출의 파급효과 공부
- massive 공부

<생2>

-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분석
- 22 수능 대비 시대인재 자료 (ATG, 서바 모고 등) 복습
- 기출 해체 분석서 공부